



'91 EDI 국제세미나·전시회 개최

협
회
동
정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EDI연구협의회(회장 성기중)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호주·유럽등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이달 7·8일 양일간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EDI 도입 사례와 국제동향등을 소개하는 대규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통신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EDI는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온 반면 국내에는 이를 도입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세미나에는 이틀동안 산·학·연·관 관계자 8백여명이 대거 참석, 최근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EDI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정용문 회장의 개회사와 윤동윤 체신부차관의 축사에 이어 정홍식

정보통신국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91 EDI국제세미나」는 이틀동안 13명의 연사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고, 분야별 패널토의가 있었다.

정용문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EDI 이용이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EDI의 국제적인 흐름과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을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EDI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행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축사에서 「EDI 활성화를 위해 UN과 아·태 각료회의등에서 각종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EDI 연구개발 지원과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윤동윤 체신부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

공중기업통신망 이용약관(안) 검토

협회는 지난달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법제위원회의를 개최, 최근 한국통신이 마련한 공중기업통신망(CO-LAN) 서비스 이용약관(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회의결과를 한국통신에 전달했다.

한국통신은 내년 1월부터 기상사설망 형태의 정보통신을 가능케 하는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마련중에 있다.



황성광 현대전자산업 부장등 협회 법제위원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안) 제3조(용어의 정의)에 명시한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 줄 것”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교류와 국제협력이 가일층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홍식 국장은 「EDI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인 표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체신부는 「EDI표준 제정작업을 EDI 정보통신프로토콜분야와 EDI 거래서식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국가표준을 최대한 조기제정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하여금 가칭 「EDI 거래서식 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등 거래서식의 국가표준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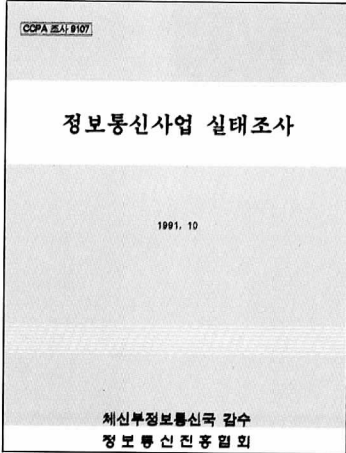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열린 전시회는 (주)에스티엠, (주)데이콤, 포스데이타(주), 동진정보통신(주), 현대전자산업(주), 삼성데이타시스템(주), 한국컴퓨터통신(주)등 국내 우수 정보통신업체

가 EDI쇼룸을 개설, 각종 EDI시연회를 가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경제신문사,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후원하고, 삼성전자(주), 포스데이타(주), (주)에스티엠, 삼성데이타시스템(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IBM(주), 동진정보통신(주)가 각각 협찬했다.(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연사들의 주제발표 내용은 ‘지상중계’란 참조)



「정보통신사업 실태조사」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체신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협회는 최근 4·6배판 9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월여간에 걸쳐 연인원 270명을 투입, 국내에서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기관 1백1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모두 107개업체(기관)가 응답해 회수율 94.7%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07개 응답업체중 정보처리, 정보검색, 정보처리전송등 순수정보통신업 만을 영위하는 업체는 39개(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업을 겸업하는 업체는 제조건설업(30), 금융보험업(17), 공공기관(8), 언론출판(5), 교육연구기관(4), 운송업(4)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업체의 제공역무를 조사한 결과 총 107개 조사대상업체중 76개사가 정보검색(DB)에 참여하고 있고, 정보처리(DP)에 74개업체, 정보처리전송에 27개업체, 정보축적전송에 25개업체가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의 업체가 1~2개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정보통신전문업체의 자산규모는 10억원미만이 15개(40.5%) 10억~50억원미만이 10개(27.0%), 50억~1백억원미만이 4개, 1백억원이상이 8개사로 자산규모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10억원미만인 영세업체가 전체의 54.9%를 차지, 종합적 정보서비스보다는 전문화된 분업적 정보제공 형태나 특정역무를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시장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7개 정보통신업체의 매출 총액은 87년 2백47억원, 88년 4백53억원, 89년 1천3백48억원, 90년 1천8백44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1백5.9%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기간동안 서비스별로 살펴본 평균매출액의 구성비는 정보처리분야가 총매출액의 6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정보검색서비스가 14.2%를 차지, 이 두가지 서비스의 매출액이 전체의 80.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 단순데이터전송 및 단순교환서비스(특정통신회선 및 DLS 매출은 제외)가 7.3%였으며, 정보축적전송, 정보처리전송, 코드 및 프로토크변환은 각각 3.1, 1.8, 1.0%에 불과했다.

매출액 구성 변동추이를 보면 단순데이터전송 및 단순교환서비스부문은 87년 36억원의 매출로 총매출액의 14.8%를 차지했던 것이 90년에는 1백14억원으로 매출이 3배 늘어났으나 구성비율은 6.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검색부문의 매출비중은 87년 6.1%에서 90년 17.1%로 증가했다.

이같은 변화는 사회전반에 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이에 대응한 정보통신업체들이 업무영역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비스제공과 관련해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정보통신업체들이 투자한 평균비용증가율은 63.9%로 매출증가율을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비용 가운데 하드웨어 구매비용이 평균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회선료가 8.5%, 인건비가 25.1%로 하드웨어, 회선료, 인건비 등 세가지가 82.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수는 35.1%인 13개업체가 50인이하의 소규모 업체이며, 51~1백명이 8개, 1백~2백명이 5개, 2백인 이상이 11개업체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업체와 합작 또는 업무 제휴를 하고 있는 업체는 11개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순수 국내기술과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